

타들어 가는 논밭... 폭염·가뭄 피해 확산

전북도내 8개 시군 인삼·고추·사과 등 792ha 고사·폐기 강수량 평년 60%...9월까지 지속뎌 농업용수 공급 차질

장기간 지속하는 폭염에 전북 논밭의 작물이 타들어 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다음 달도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김장배추도 못 심을판이다. 최근 2개월간 도내 누적 강수량도 324mm로 평년 494mm의 66% 수준으로 부족하다.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3.8%로 평년 71.6%의 75.6%밖에 되지 않는다. 대야저수지와 고창 신림저수지의 저수율은 20%대로 주저앉았다.

밭 토양유수 수분율도 이미 45% 아래로 떨어져 '가뭄 주의단계'가 계속되고 있다. 가뭄 주의단계는 최근 2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대비 70% 미만이고 저수율이 평년의 70~81% 또는 밭 토양유수 수분율이 60~41%인 상황에 해당한다.

폭염·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도내 8개 시군 900여 농가의 작물 792ha가 피해를 봤다.

부안과 김제, 진안 등지의 인삼(155ha)과 고추(89ha), 사과(18ha) 등이 고사하거나 폐기됐다.

전북도는 8억5000여만원을 들여 관정을 파고 간이양수장을 만드는 등 가뭄 긴급대책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논물 마름과 밭작물 시들 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폭염 피해로 버려지는 사과.

내리지 않으면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서 다양한 용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폭염의 장기화로 가축분뇨 약취도 심화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축사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폭염으로 악취 배출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밀폐해 악취가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기초단체, 약취모니터단 등과 함께 3주간 악취 배출원 밀폐 여부 등 관리상태, 탈취제 등 악취 저감제 살포 여부, 악취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악취 포집·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점검은 생활 주변 시설 중 매년 악취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산농가,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

전북대 학군단 부지 국제컨벤션센터 착공

2020년까지 국비 187억 들어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조감도.

국제 학술대회 등 지역의 대규모 행사를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북대학교에 마련된다.

전북대는 최근 생태·자연경관이 우수한 옛 학군단 자리에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는 오는 2020년까지 국비 187억원을 들여 옛 학군단 자리인 600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층, 전체 건축면적 969.3㎡ 규모로 건립된다.

이 곳에는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홀을 비롯해 중소 규모의 11개 세미나실, 영빈관,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규모 행사장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행사 등도 치를 수 있어 대형 국제 행사 등 지역의 큰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했던 전북지역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

특히 네모 형태의 건물 배치로 넓은 마당을 확보하고 있고, 사방을 둘러싼 모든 건물이 한옥으로 지어져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브랜드와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주변을 둘러싼 건지산과도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적 조건도 한옥형 건물의 고스펙함과 어울린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속원사업인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은 전북권의 대규모 행사를 한 자리에서 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회관 대학 가족의 종합복지센터 기능까지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 대학만의 컬트 브랜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

19세~39세 농업인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고창군 24일까지 신청

고창군은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CEO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만 19세39세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고창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063-560-8813)으로 오는 24일까지 하면 된다.

군은 40세 미만의 경영주가 농가 비중의 1%에 못 미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군은 이번 아카데미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아카데미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운영되며 농식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역 생산농산물을 토대로 가공과 유통 마케팅 등의 창업교육을 지원해 유능한 청년창업 사업가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체험·관광 등 6차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의 유능한 청년농업 CEO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지원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전차제일 농식품수도로서 활력이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삼계탕 드시고 힘 내세요

지난 16일 남원시 죽향동에서 열린 복달임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이 삼계탕을 먹고 있다. 이번 행사는 말복을 맞아 죽향동 발전협의회(회장 김숙자)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기 위해 열렸다.

<남원시 제공>

정읍시 출산 분위기 확산 장려금 지원 대폭 강화

정읍시는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정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정읍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과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모 기준

순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또는 모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 순위로 인정하고 있다.

시는 첫째 아이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 을 지원한다. 또 둘째 아이에게는 100만원 을 매일 20만원씩 5회 지급한다.

셋째 아이에게는 300만원을 매일 30만

원씩 10회 지급하고 넷째 이상에는 매일 50만원씩 20회에 걸쳐 지원한다.

단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 전출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시민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샘플보건지소(063-539-675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

장성군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장성군이 황룡강 국가 정원 지정을 추진한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27일 군청에서 황룡강 국가 지정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기획감사실, 엘로우시티프로젝트팀, 재난안전실, 문화관광과, 산림정책과, 경관도시과, 민원봉사과 등 관련 부서 실무진이 모여 황룡강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나선다.

정원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지방·민간·공동체 정원으로 나뉜다.

국가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한다.

녹지 면적이 30만㎡를 넘고 전통·문화

·식물 등 서로 다른 주제로 5종 이상 정원을 갖추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다.

운영비 국비 지원과 국가 차원 홍보,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성군은 노란꽃잔치 축제의 무대인 황룡강 일원이 지난해 100만명에 가까운 탐방객을 모았고 역사·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며 접근성도 뛰어나 국가 정원으로 인정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4월 국가 정원 지정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고 2023년까지 전남도 지방 정원으로 지정받은 뒤 국가 정원 신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10주년 사진 공모전

완도군이 슬로시티 청산도 10주년을 맞아 청산 8경과 사계절 사진을 다음달 21일까지 공모한다.

사진 공모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 10년이 지난 청산도의 8경을 비롯해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2018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 축제와 연계,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 전시회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3일간) '청산도 살어리랏다'란 주제로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동 1층 전시장

에서 청산 8경 및 사계절 사진 40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담당(061-550-5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봉일 완도군 관광정책과장은 "청산도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도록 사진 동호회 및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

상가(빌딩) 매매 - 진월동 -

- 대 지 1,132㎡
- 건물 4,739㎡(공실없음)
- 매 가 78억
- 수익률 6.8%

☎ 010-2602-7266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정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오피스텔 급매합니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음, 즉시 입주가능
- 관리비 저렴, 사무실전용
- 2층, 38평, 9400만원
- 3층, 38평, 8400만원
- 7층, 53평, 1억1400만원
- 8층, 33평,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